

종교성향, 종교적 대처와 상황적 용서의 관계[†]

신재은 현명호[#]

중앙대학교

본 연구는 종교 변인이 상황적 용서에 영향을 주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종교성향, 종교적 대처 그리고 상황적 용서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154명의 개신교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각 변인에 대한 척도에 답하도록 하였다. 상황적 용서는 외재적 종교 성향과 부정적 종교대처와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고 내재적 종교 성향과 긍정적 종교대처와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예외적으로 긍정적 종교적 대처는 상황적 용서와의 상관이 없었다. 상관 결과에 따라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재적 종교 성향과 상황적 용서의 매개변인으로서 부정적 종교적 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내재적 종교 성향은 부정적 종교적 대처와 상관이 없어 매개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적으로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제 삶에서 용서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 방식은 타인을 용서하는 능력과 용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용서 증진을 위하여 용서 개입이 필요하고 부정적 종교적 대처를 다루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힘의를 갖는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종교 성향, 종교적 대처, 상황적 용서, 가해상황

[†] 이 논문은 2009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EL: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

최근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용서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상처를 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된다. 용서를 거부함으로써 생기는 분노는 인간관계 뿐 아니라 정신과 신체의 건강까지 망치게 된다. 용서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인 원한을 가지거나 판단을 할 권리를 버리고 가해자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자비, 동정심, 사람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인지, 정서, 행동적 반응의 복합체이다(Enright, Gassin, & Wu, 1992). 즉,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인지, 행동이 감소하고 긍정적인 정서, 인지, 행동이 증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용서는 크게 성향적 용서(dispositional forgiveness)와 상황적 용서(situational forgiveness)로 나눌 수 있다. 성향적 용서란 상황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용서에 대한 태도 및 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상황적 용서는 특정 가해상황에서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한 용서를 가리킨다. 대부분 용서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상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므로 상황적 용서는 성향적 용서보다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용서 행동을 더욱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오영희, 2010). 즉, 상처를 받은 후에 발생하는 부정적 반응은 상황적 용서를 통하여 극복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가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복수하고자 하는 행동이 호의적인 감정, 생각, 행동으로 변할 수 있다. 용서를 통한 이러한 변화는 정신과 신체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Enright & Fitzgibbons, 2000).

용서의 긍정적 효과는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박종효(2003)는 여러 연구를 리뷰하고, 용서가 대인관계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신체와 정신건강과도 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용서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유발되어 교감신경, 심혈관계, 그리고 변연계에 질병을 경험할 수 있다. 정신 건강의 측면에서 용서는 우울, 분노, 불안, 충동적 행동, 강박적 사고와 부적 관계가 있는 반면, 자아존중감, 희망, 정서적 안녕감과는 정적 관계가 있다(Enright et al, 2000; Worthinton Jr., 2005).

용서의 또 다른 측면은 영적인 것으로 용서하는 것은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초월하여 신과 세계 그리고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되며 영적 차원에서 성숙과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오오현, 2005). 이러한 면에서 용서는 종교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종교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용서는 오랫동안 종교적 경험과 관련이 되어 왔으며 특히 기독교에서 용서는 사랑과 더불어 핵심적 덕목이다. 따라서 기독교에서는 용서를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노력으로 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성경은 인간을 둘러싼 모든 관계에서 용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과 예수는 용서의 역할 모델로서 여겨지며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그들을 조건 없이 용서했기 때문에 그들도 용서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Marty, 1998). 이러한 측면에서 용서를 촉진하는 개인 내적인 요인 중 종교의 영향력을 가정할 수 있다.

종교성이란 종교적 행동, 지식, 믿음에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는 것으로서(Arglyle &

Beit-Hallahmi, 1975), 어떤 종교 교단에 대한 관여도, 종교 조직 활동에의 참여 정도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Johnson, 1992). 종교성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여 측정방법도 다양하다. Allport와 Ross (1967)는 종교성향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종교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방향 및 목적이며 신앙을 갖게 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방향과 목적에 따라 종교 성향은 내재적 성향과 외재적 성향으로 나뉜다. 내재적 성향의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주요 동기를 종교에서 발견하고, 종교적 교리를 내면화시키려고 하며 그대로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한다. 외적으로 동기화된 외재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종교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성향의 사람은 다양한 측면, 즉 안정감이나 위로, 친교, 여가선용, 사회적 지위나 자기 정당화 하는 기회를 종교가 제공하기 때문에 종교를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김동기, 2003).

종교 성향은 종교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서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 종교성향과 용서간의 관계를 탐색한 그동안의 연구는 일상적인 차원에서 종교성과 성향적 용서의 관계를 고찰해 왔다.

Rokeach(1973)의 연구에서는 종교 성향, 교회 참여빈도와 용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종교 성향이 내재적인 사람과 교회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이 용서에 가치를 크게 두었다. 최근 Brown, Barness와 Campbell(2007)의 연구에서 내재적 종교 성향과 용서 경향성과 용서 태도 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성향적 용서와 종교 성향이 관련이 있다는 연

구가 지지되어 온 것과 달리 상황적 용서는 종교적 변인과 유의한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McCullough & Worthington, 1999; Subkoviak et al., 1995; Rakely, 1993).

본 연구에서는 특정 가해 상황에 대한 상황적 용서와 종교적 변인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자 한다. 특정 가해상황은 피해자에게 있어서 명백한 스트레스 상황이다. 피해자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 원한, 분노, 부정적 평가 그리고 냉담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대처란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정서, 인지, 생리, 및 환경을 조정하려는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노력이다 (Compas, Jeniffer, Saltzman, Thomsen, & Wadsworth, 2001). Lazarus와 Forkman (1984)은 대처를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한다. 대처는 개인과 환경 간의 지속적인 교류과정으로서 평가와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대처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을 계속 재해석하고 대안적인 다양한 대처 행동을 자주 적용하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경험하는 다중 방향적인 과정이다(Strean & Covic, 2006).

본 연구에서는 종교와 용서와의 관계를 특정 상황에서의 용서로 확장시키기 위해 종교적 대처 개념을 다루었다. Paraggament(1997)는 Lazarus와 Forkman(1984)의 대처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종교적 대처 개념을 제시하였다. 종교적 대처는 개인이 특정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떠한 종교적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종교는 스트레스 상황의 대처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 의미는 개인의 삶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는 가치, 신념, 정서 및 개념적

틀이 통합되어 있는 복합체이다. 개인이 의미를 형성하고, 조절하며, 전환하는 것에 종교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핵심에는 통제가 있다(Spilka, Hood, Hunsberger, & Gorsuch, 2003).

위기를 지각하는 개인의 경험의 핵심에는 통제력의 부족이 존재한다. 스트레스를 촉발하는 사건이나 환경에서 개인은 의미와 통제의 욕구를 갖는다. 심각한 위기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상황일수록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와 그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느끼게 된다. 이 때 종교인은 절대적인 존재인 신에게 의지할 수 있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해 주는 종교에 큰 의미를 두게 된다. 즉, 종교적 대처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의미를 찾고 환경을 통제하려고 한다(반신환, 2006).

종교적 대처는 긍정적 대처와 부정적 대처로 분류된다. 긍정적 대처란 개인의 의미와 통제를 증가시키는 대처이며,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긍정적 종교적 대처를 하는 사람은 영성적 지원을 모색하고 종교적 차원에서 용서를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나타내고 종교에 초점을 두고 종교적 관점에서 재평가한다. 부정적 대처 유형의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절대자나 공동체로부터 벼랑받았다고 생각하고 부정적 사건에 대해 절대자의 처벌이나 악한 세력의 짓이라고 재판단하며 신의 능력이나 사랑을 의심한다(Pargament, 1997).

Pargament, Kennel, Hathaway, Grevengoed, Newman과 Jones(1988)는 위기에 처했을 때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일반적인 종교 성향보다 종교적 대처가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종교 성향은 이러한 종교적 대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Pargament, 1997). 스트레스 사건에 직면했을 때 종교에 대해 가지는 동기는 특정 형태의 대처 방식으로 변형될 것이며 어떤 대처방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Hathaway와 Pargament(1990)는 종교 성향과 심리사회적 능력 및 자존감 간의 관계를 종교적 대처 유형이 매개함을 밝혔다. 최명심과 손정락(2010)도 긍정적 종교적 대처가 내재적 종교 성향과 삶의 의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대인 관계적 갈등상황에서 종교적 대처는 종교 성향과 상황적 용서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종교 성향과 성향적 용서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있었지만(Rokeach, 1973; Brown et al, 2007),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적 용서에 있어 종교가 어떠한 기제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상황적 용서에 영향을 주는 종교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종교 성향, 종교적 대처와 상황적 용서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에 위치한 교회와 신학대학교에서 개신교에 속하는 성인 기독교인 158명(남: 50명, 여: 104명)이었다. 이중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4명을 제외한 15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3.75(± 14.19)세였으며 범위는 18세에서 63세까지 였다.

측정도구

종교 성향. Allport와 Ross(1967)가 개발한 내재적-외재적 종교 성향 척도(Intrinsic religious and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subscale)를 십수명(199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내재적 종교 성향을 측정하는 8문항과 외재적 종교 성향을 측정하는 11문항 및 집단의 구분에 사용되는 1문항을 포함하여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1점에서 4점 척도로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게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외재적 성향의 신뢰도(Cronbach α) .74, 내재적 성향의 신뢰도(Cronbach α)는 .67로 나타났다.

종교적 대처. 종교적 대처는 Pargament, Koenig, Perez(1998)가 개발한 종교적 대처 척도(The Brief Religious Coping Scale, RCOPE)를 조혜윤과 손은정(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종교 대처 7 문항과 부정적 종교 대처 7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긍정적 종교대처 항목에는 영적인 지지를 찾음, 영적인 연결을 찾음, 절대자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함, 용서함,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7가지의 부정적 종교 대처 항목에는 절대자의 처벌이라는 평가, 절대자에 대한 불평, 악한 세력의 방해라는 평가, 영적인 불평, 절대자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1~4점 척도로 종교적 대처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따라 응답하였으며, 긍정적 종교대처 방식

과 부정적 종교 대처 방식을 따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대처의 신뢰도(Cronbach α)는 .84이며 부정적 대처의 신뢰도(Cronbach α)는 .79이었다.

상황적 용서. 상황적 용서를 측정하기 위해 Enright(1991)가 개발한 Forgiveness Inventory (EFI)를 오영희(2008)가 한국인에게 적합하게 수정 보완한 한국인 용서 척도(Korean Forgive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EFI는 자신에게 부당하고 심각한 상처를 준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상처를 입힌 특정한 사람에 대한 용서인 상황적 용서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이 척도는 정서영역 9문항, 인지영역 7문항, 행동영역 8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타인을 용서한 정도를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는 .92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종교성향과 용서의 관계에 있어서 종교적 대처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종교 성향, 종교적 대처와 용서의 평균과 상관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외재적 종교 성향은 부정적 대처($r=.395, p<.01$)와 정적 상관, 긍정적 대처($r=-.181, p<.05$)와는 부적 상관, 그리고 용서($r=-.174, p<.05$)와는 부적인 상관이 있었다.

내재적 종교 성향에서는 긍정적 종교적 대처($r=.500, p<.01$)와 정적 상관, 용서와 정적 상관($r=.222, p<.01$)이 있었다. 그러나 내재적 종교 성향과 부정적 종교적 대처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부정적 종교적 대처가 용서와 부적 상관($r=-.246, p<.01$)이 있었지만 긍정적 종교적 대처는 용서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종교성향과 상황적 용서의 관계에서 종교적 대처의 매개효과

종교 성향의 하위 요인인 외재적 종교성과 내재적 종교 성향이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과정에서 종교적 대처가 설명력을 증가시켜주는 매

개 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은 매개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매개 변인이 추가되었을 때 더 작게 나타나야 한다. 이때 예측 변인의 β 계수가 매개변인을 추가했을 때 유의하지 않게 되면 완전 매개, β 계수가 감소하기는 하나 유의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부분 매개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내재적 종교 성향과 부정적 종교적 대처 간의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 긍정적 종교적 대처는 상황적 용서와 유의한 상관이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외재적 종교 성향과 상황적 용서의 관계에서 부정적 종교적 대처의 매개효과만을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표 2), 외재적 종교 성향에서 매개변인으로 상정한 부정적 종교적 대처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beta=.326$), 독립변인인 외재적 종교 성향이 종속변인인 상황적 용서에 미친 영향도 유의하였다($\beta=-.624$). 회귀식에 긍정적 종교적 대처가 포함되었을 때 외재적

표 1.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

	평균	표준편차	1	2	3	4
1. 외재적 종교 성향	23.15	4.46	–			
2. 내재적 종교 성향	26.14	2.95	-.180*	–		
3. 긍정적 종교적 대처	22.83	2.95	-.181*	.500**	–	
4. 부정적 종교적 대처	14.29	3.57	.395**	-.087	-.077	–
5. 상황적 용서	76.28	16.01	-.174*	.222**	.133	-.246**

* $p<.05$, ** $p<.01$

종교 성향의 영향이 감소하였고($\beta=-.327$), 세 번째 방정식에서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Sobel 검증 결과 유의도의 변화가 유의하여서 ($Z=-2.22$, $p<.05$), 부정적 종교적 대처는 외재적 종교 성향과 상황적 용서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종교 성향은 용서의 3%를 설명하였고 외재적 종교 성향과 부정적 종교적 대처를 포함한 모델은 용서의 6.7%를 설명하였다.

논의

본 연구에서는 특정 가해상황과 관련한 상황적 용서에 대해 종교 성향의 하위 요인인 외재적 종교 성향 및 내재적 종교 성향, 종교적 대처의 하위 요인인 긍정적 종교적 대처와 부정적 종교적 대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요 변인 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종교 성향이 상황적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종교적 대처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독교인에게 있어 대인 관계적 갈등 상황에서 종교 성향이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며 이와 관련하여 종교

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상황적 용서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외재적 종교 성향과 부정적 종교적 대처는 상황적 용서와 부적 상관을 있었다. 외재적 종교 성향을 가지고 부정적 종교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 수록 대인관계 갈등상황에서 용서를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신앙을 사용하는 외재적 종교 성향의 사람의 경우 상황이나 관계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대자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 가해상황을 겪었을 때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절대자의 사랑을 의심하는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 방식도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이끄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내재적 종교 성향의 사람은 긍정적 종교적 대처와 상관이 있었을 뿐 아니라 상황적 용서와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도덕적인 측면에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친사회적 행동을 이끌 수 있다. 이는 용서 행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적 종교적 대처와 상황적 용서 간에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긍정적 대처는 부정

표 2. 용서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단계		F	R ²	△R ²	β
1단계: 독립변인 외재적종교성향	→ 매개변인	28.049	.156	.156	.326***
	→부정적종교적 대처				
2단계: 독립변인 외재적종교성향	→ 종속변인	4.745	.030	.030	-.624*
	→ 상황적 용서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1)외재적종교성향 2)부정적종교적 대처	→ 종속변인	1.136	.060	.060	-.327
	→ 상황적 용서				
	→ 상황적 용서				

* $p<.05$, ** $p<.01$, *** $p<.001$

적 사건에 대해 절대자와 강한 유대 관계를 추구하고 그 관계 안에서 돌봄과 사랑을 얻으며 신앙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대처방식이다. 분노의 해결에 있어서도 신의 도움을 받고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 성장을 기대한다. 이는 고통이 성장을 이끈다는 다양한 종교적 전통과 일치한다. 대인 관계 갈등 상황에서 긍정적 종교적 대처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 내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성장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실제 생활에서 상황적 용서를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교와 실제 삶의 분리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바람직한 대처방식을 가지고 신과의 관계는 좋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용서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용서가 기독교의 핵심 덕목임을 감안할 때 기독교인이 자신을 용서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 (McCullough & Worthington, 1999)과 달리 실제로 감정적으로는 용서를 잘 못하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용서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함으로 시사한다.

종교 성향과 상황적 용서 간의 관계에서 종교적 대처가 매개하여 상황적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외재적 종교 성향은 부정적 종교적 대처를 통해서 상황적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적 대처 유형이 주요 삶의 사건과 종교 성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Pargament(1997)의 주장을 일부 지지한다.

외재적 종교 성향을 가진 사람은 종교 자체를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 종교를 사용한다. 이러한 종교에 대한 접근법은 부적

절한 사회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재적 성향은 부정적 종교적 대처를 통해서 용서에 영향을 준다. 부정적 대처를 사용하는 사람은 대인 간 갈등 상황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의미를 찾는 부분에 있어 자신을 자책하며 신으로부터 벼랑받았다고 생각하고 절대자의 사랑을 의심한다. 부정적 상황에 대한 적절한 의미와 적응적인 통제를 종교에서 찾지 못하면 대인 관계에 가치를 부여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인 상황적 용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적 용서는 우울이나 불안과 부적 상관이 있고(Coyle & Enright, 1997), 희망과 자아 존중감 (Freedman & Enright, 1996), 관계 적응 (McCullough, Rachal, Sandage, Worthington, Brown, & Hight, 1998)과 정적 관계가 있다. 즉, 상황적 용서는 정신 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변인이다(Toussaint, Williams, Musick, & Everson, 2001).

개인의 종교적 대처 전략을 탐색하고 그들의 종교가 대처 자원인지 혹은 스트레스 상황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짐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부정적 종교적 대처는 대인 관계적 갈등 상황에 있어서 용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적 결과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교적 이슈에 대한 민감성은 용서 개입에 있어서 상황적 용서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용서를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 뿐 아니라 상황적 용서 프로그램 개입의 필요함을 시사한다. 상황적 용서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용서가 무엇이며 용서에 필요한 단계는 무엇인지 교육하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상황적 용서를 증진시키는 것은 대인 관계적 갈등과 내적 갈등의 해소 뿐 아니라 더 건강한 정신과 적응적인 삶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Enright(2001)는 상황적 용서를 촉진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 아동 뿐 아니라 북아일랜드의 내란 피해자에게 적용하여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얻고 있다. Worthington(2001)도 가까운 사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용서의 방법을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특히 종교적인 개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 성향과 종교적 대처를 통한 용서의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추후 이를 적용한 연구가 요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보충하고 상황적 용서와 종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확장하기 위하여 종교 성향 뿐 아니라 종교적 대처가 상황적 용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 성향과 종교적 대처 방식의 기제를 이해함으로써 매개 변인인 대처 방식과 관련하여 상황적 용서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 성향과 종교적 대처, 그리고 용서의 관계를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탐색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용서의 의미를 내포하는 자비를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는 불교인의 종교 성향과 대처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결혼 상태, 교육 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종교를 갖게 된 기간이나 종교행위의 참여여부 등 종교적인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은

용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을 고려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동기(2003). 종교심리학. 학지사:서울. 박종효(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3(2), 301-321.
- 반신환(2006). 대학생의 종교와 종교적 대처: 내담자의 종교.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1, 139-155.
- 심수명 (1993).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에 따른 자아 분화 와 죄책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희(2008). 한국인 용서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1045-1063.
- 오영희(2010). 한국인 용서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15.
- 오오현(2002). 기독교인 용서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4, 117-150.
- 조혜윤, 손은정(2008). 종교성향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대처와 낙관성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20(2), 773-793.
- 최명심, 손정락(2010). 내재적 종교 성향과 삶의 의미에서 종교적 대처의 매개역할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91-105.
- Allport, G. W., & Ross, J. W. (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32-44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rown, R. P., Barness, C. D., & Campbell, N. J.

- (2007). Fundamentalism and forgiv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1437-1447.
- Compas, B. E., Jeniffer, K. C., Saltzman, H., Thomsen, A. H. & Wadsworth, E. M. (2001).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roblems, progress, and potential in theory and research. *Psychology Bulletin*, 127, 87-127.
- Coyle, C. T., & Enright, R. D. (1997). Forgiveness intervention with postabortion 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1042-1046.
- Enright, R. D. (2001). *Forgiveness is a Choi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D.,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1). *The Moral Development of Forgiveness*. In W. Kurtines & J. Gewi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Vol.1). Hillsdale, NJ: Erlbaum.
- Enright, R. D., & Fitzgibbons, R. P. (2000). *Helping Clients Forgive: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D., Gassin, E. A., & Wu, C. (1992). Forgiveness: A development view. *Journal of Moral Education*, 21, 99-114.
- Freedman, S. R., & Enright, R. D. (1996). Forgiveness as an intervention goal with incest survivo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983-992.
- Gorsuch, R. L., & Hao, J. Y. (1993). Forgiveness: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its relationships to religious variable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4, 333-347.
- Hathaway, W., & Pargament, K. I. (1990). Intrinsic Religiousness, Religious Coping, and Psychosocial Competence: A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Journal for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 423-411.
- Jonhson, R. L. (1992). *Religion in society: A Sociology of Religio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 Lazarus, R.,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wis, C. A., Maltby, J., & Day, L. (2003). Religious orientation, religious coping and appraisals of stress: assessing primary appraisal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s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1209-1224.
- Marty, M (1998). The ethos of Christian forgiveness. In E. L. Worthington, Jr (Ed.), *Dimensions of Forgiveness*. (pp. 9-28). Philadelphia: Templeton Foundation Press.
- McCullough, M. E., & Worthington, E. L., Jr. (1999). Religion and the forgiving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67, 1141-1164.
- Mc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E. L., Jr., Brown, S. W., & Hight, T. L.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86-1603.
- Pargament, K. I (1997).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Cop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London: Guilford Press.
- Pargament, K. I., Koenig, H. G., & Perez, L. M. (1998). *The Many Methods of Religious Coping: Initi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RCOP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CA.
- Pargament, K. I., Koenig, H. G., & Perez, L. M.

- (2000). The many methods of religious coping: Initi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RCOP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4), 519-543.
- Pargament, K. I., Kennel, J., Hathaway, W., Grevenoed, N., Newman, J., & Jones, W. (1988). Religion and problem-solving process: Three styles of coping. *Journal for Scientific Study and Religion*, 30(4), 90-104.
- Rakely, J. V. (1993). *The relationship of marital satisfaction, forgiveness, and religiosity*.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Blacksburgh, VA. USA.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 Spilka, B., Hood, R. W., Hunsberger, B., & Gorsuch, R. (2003).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 Empirical Approach* (3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Strean, P., & Covic, T. (2006). A Review of forgiveness process models and a coping framework to guide future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10), 1059-1085.
- Subkoviak, M. J., Enright, R. D., Wu, C., Gassin, E. A., freedman, S., Olson, L. M. & Sarinopoulous, I. (1995). Measuring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late adolescence and middle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18, 641-655.
- Toussaint, L. L., Williams, D. R., Musick, M. A., & Everson, S. A., (2001). Forgiveness and health: Age differences in a US probability sampl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8, 249-257.
- Worthington, Jr. L. (2001). *Five Step to Forgiveness*. NY: Crown Publisher.
- Worthington, Jr. L. (Ed.) (2005). *Handbook of Forgiveness*. New York: Routledge.

원고접수일: 2010년 11월 15일

수정논문접수일: 2010년 12월 4일

게재결정일: 2010년 12월 7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0. Vol. 15, No. 4, 699 - 710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 religious coping and situational forgiveness

Jaeeun Shin Myoung-Ho Hyun
Chung-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plored whether religious variables have effects on situational forgiveness. Using a sample of 154 Christians,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ness, religious coping and situational forgiveness. All religious measures were correlated with situational forgiveness, but positive religious coping was not correlated with forgiveness variabl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correlations, we tested the mediation. Since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intrinsic religiousness and negative religious coping, these two variable were excluded from mediation test. Result of testing mediation indicated that negative religious coping play the role of a mediator between extrinsic religiousness and situational forgiveness.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practical implications regarding the forgiveness-religion link for Christians, suggesting that the forgiveness intervention is needed to promote to forgive effectively. Also decreasing negative religious coping might be important in forgiveness in specific transgressions.

Keywords: religiousness, religious coping, situational forgiveness, transgression